



충남마을기행

보령 은행마을

은행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보령 은행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은행으로 하나되는 마을

봄철에 피는 노란 개나리가 풋풋함과 상큼함을 의미한다면, 가을에 셋노랑게 올라오는 은행잎은 태양빛 머금은 성숙함과 원숙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은행(銀杏)은 원래 ‘은빛이 나는 살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은행씨가 살구씨와 비슷하게 은빛이 나기 때문에 은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다른 말로 공손수(公孫

樹)라고 부른다. 이는 은행나무 수령이 20년 이상 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면 손주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충남 보령에는 바로 은행으로 조상의 후손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이 있다.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이름 그대로 ‘은행마을’이 그곳이다.

날씨 화창한 가을 어느날, 필자가 찾아가보니



〈청라은행마을 김청한 위원장〉

정말 은행나무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은행마을 단풍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김청한 마을운영위원장(61세)을 만났다.

필자가 찾은 다음날이 바로 축제일이라서 그런지 지역 방송사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필자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제일 뒷전으로 밀려야만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마을에서 내세울 건 이 은행밖에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마을을 알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축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마을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줄곧 이장을 지내오다가 지난 2010년부터 마을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당시 다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던 녹색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등으로 지정받으면 정부지원도 받고 마을사업도 욕심껏 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마을에 있던 폐교를 리



〈교육장은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5인용 6개, 20인용 1실 등을 갖추고 있음〉

모델링해 체험객을 맞을 교육장과 사무실, 숙박 및 식당시설 등을 꾸며 은행마을 녹색농촌체험 사업을 개시하게 됐다. 현재 마을에 있는 약100여 가구 중 60% 정도가 이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에는 거의 모든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나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 특산물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을 주변에 성주산과 오서산 등을 찾는 관광객이 6~7만 명인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순수한 체험객은 연간 천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마을의 자랑 ‘은행나무’

위에서 은행나무가 공손수라고 말했었다.



〈은행마을엔 은행나무 2천그루가 심어져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이 마을주민들은 조상 덕분에 밥걱정 안하고 살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은행나무를 계속 심겠다고 한다.

지금 마을에 심은 은행나무는 대략 2,000그루. 이중 수확할 수 있는 은행열매는 연간 200톤 내외인데,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다. 이게 약 4억원 어치나 된다고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연매출이어서 필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래서 ‘공손수’라 하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은행마을에서는 은행을 이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제조·판매하

고 있다. 특히 은행분말, 은행수제비 등이 인기가 많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우렁이쌀, 고추, 마늘 등도 많이 찾는다고.

예로부터 은행은 폐가 허약해 나타나는 오래된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에도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제조법을 다양화해 은행 엑기스, 은행 식초 등을 개발해서 상품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는 다른 점이 바로 체험프로그램에도 은행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진중인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끝을 찡긋하게 만드는 은행의 특이한 냄새를 제대로 맡고 싶다면 이 마을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목걸이만들기 오서산에서 채취한 나무로 목걸이만들기 체험비 : 5,000원	천연비누만들기 천연재료를 소재로 비누만들기 체험비 : 5,000원	피리만들기 마을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로 피리만들기 체험비 : 5,000원	인절미만들기 마을에서 생산한 우렁이합살로 인절미만들기 체험비 : 10,000원

			
핸드프린팅 석고나 진흙에 손도장을 찍어 기념품으로 남길 수 있어 가족끼리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토피아리만들기 직접만들어서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잔디인형만들기 싸앗이 어떻게 풀이 되는지 물을 주면 관리하는 과정에 자연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대나무물총만들기 자연재료인 대나무로 물총을 만들어 추억을 되살리는 좋은 기회이며 공기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체험비 : 5,000원

〈은행마을 상시 체험거리〉 <출처 : www.은행마을.org>

			
은행모자이크만들기 은행 잎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본다 체험비 : 5,000원	은행털기, 줍기 알레르기 때문에 꺼리지만 고무 장갑을 착용하면 걱정없다 체험비 : 5,000원	은행두부,묵,전병만들기 은행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영양먹거리를 만들어본다 체험비 : 5,000원	은행밥,백숙 은행을 먹여키운 닭으로 백숙을, 은행을 넣은 영양밥체험 체험비 : 10,000원

〈은행마을 특화 체험거리〉 <출처 : www.은행마을.org>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평생 은행만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김 위원장과 마을 주민들의 마을 사랑이 계속 되는 한 말이다.

필자가 경험했듯이 가족, 연인, 단체 등이 은행마을에 방문하면 깊어가는 가을, 레드카펫 못지않은 골드카펫을 밟으며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힐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은행털이범(?)이 될 수 있는 점은 각오하라! ^^

주변 관광자원과의 결합,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은행마을은 2012년 처음 마을이름을 걸고 첫 축제를 열었다. 물론 한계도 보였다. 시골에서 처음 축제를 갖다 보니 주차장이나 행사장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희망도 보았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신경섭 전통가옥'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1843년 건립)을 찾은 관광객과 함께 어울려 자연이 만든 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 등 마을의 특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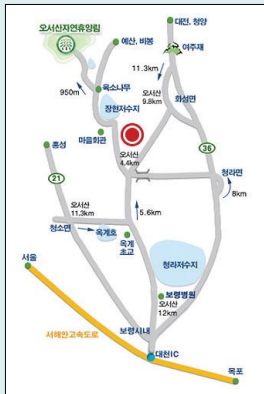
특히 은행마을 주변에는 오서산역새, 청라저수지 가을단풍, 대천해수욕장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해 이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등과 연계하면 올해 처음 열린 단풍축제가긴 하지만 앞으로 국내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잡



〈제1회 청라은행마을 단풍축제 모습〉

[보령은행마을...]

● 찾아가는 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C로 빠져나와 청양 방향으로 12km 이동 후 청라교차로에서 좌측으로 가다가 오서산길 장현리 방향으로 가면 되고, 대전 등에서는 서천-공주고속도로 청양C로 빠져 칠갑산을 지나 청양 못가 탄정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보령 방향으로 10km 직진 후 구숫골길 화성면사무소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 주소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545-7 (T. 070-7845-5060)

▶ 홈페이지 : www.은행마을.org